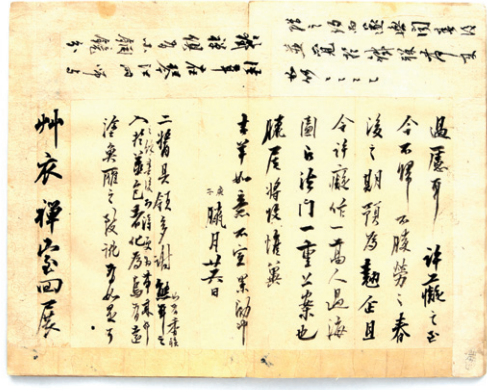


“입을 벌리면 먹고 눈을 감으면 잡니다”

완도의 이진포에서 아쉬운 이별을 고했던 추사, 제주도에 도착한 지 백 여일이 지난 후 초의의 편지에 답신을 보낸다. 물과 섬, 제주도는 지금처럼 가까운 땅이 아니다. 거친 풍랑을 이긴 후에야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며, 세상의 풍문이 단절된 땅이었다. 초의가 보낸 편지에 “마음이 위로되고 가슴이 후련해졌다”는 추사였다. 간난의 처지에서도 막힘없는 원용의 경지를 넘나들던 추사의 달변을 응대할 상대는 초의였다. <완당전집> <여초의> 15신에는 이들의 무애의 경계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제주 유배시 추사와 초의의 교유를 살필 수 있는 <벽해타운첩>

不勝勞 春後之期預爲翹企 且令許痴作一高人 過海圖 即法門一重公案也 臘尾將收 唯冀吉羊如意 不宜 累劫冲 庚子 臘月 廿六日
二樽具領多謝 熊耳之入於置包者 化爲烏有 遠塗魚雁之致訛 有如是耳 如有香積之餘 春後可得 更爲帶來耶 往年在琴江時 師與鐵禪 俱有小銅鏡分贈之 約而遂無聞 春後並覓 於鐵禪 帶來如何 帶來如何

<벽해타운첩>에도 함께 수록된 이 편지는 경자(1840) 12월 26일에 쓴 것이다. 실제 추사는 월일만 기록했다. 친필본 추사의 편지에 세필(細筆)로 쓴 “경자(庚子)”는 초의의 글씨이고, 하단의 “如有香積之餘-帶來如何” 부분과 년 월일은 <완당전집> <여초의> 15신에는 결락되었다. 따라서 <벽해타운첩>은 제주도 유배 시기 추사와 초의의 구체적인 교유 사실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추사가 소치에게 “고인과해도(高人過海圖)”를 그리게 했는데 이것을 불교의 공간으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고인(高人)이 바다를 건너는 그림인 고인과해도(高人過海圖)는 실제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향하는 초의를 그리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망망한 바다, 풍랑을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 선각자인 신선을 그린 것인가. 아마도 추사 자신을 그리 표현한 것인 지도 모른다. 한편 초의는 대문사의 진미(珍味)인 능이버섯과 장류를 제주로 챙겨 보냈다. 추사가 항적을 보내라는 거듭된 재촉은 지기(知己)에게나 통하는 정감어린 회언(戲言)이었다.



박준영(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선두(船頭)에서 깊이 생각해 보니 모르겠습니다만 해인의 빛남도 이와 같은 경지가 있는 것인지요. 진실로 터럭이 거대한 바다를 삼키고, 개자 씨가 수미산을 받아들여 막힘없는 원용으로 녹인다는 것을 그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들어온 후 이미 백일이 지났습니다. 소식을 듣기에 불리하여 세상의 소문들이 마침내 여기엔 막히고 끊어졌는데, 홀연히 여기 멀리까지 그대가 편지를 보내 주어, 실로 수행이 정길(淨吉)하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흐뭇하고, 가슴이 트이는 듯합니다. 저는 요즘 입을 벌리면 먹고, 눈을 감으면 잡니다. 그대의 삶도 이것을 벗어남이 있는가요. 그대는 자비로서 의당 마음이 쓰이겠지만 지나치게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허 소치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아 무척 기다려집니다. 봄이 지난 후 (제주도에 온다는) 기약한 것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또 허 소치에게 “고인과해도(高人過海圖)”를 그리게 한 것은 곧 법문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선달도 다 지나 가는데, 오직 길상여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누룩총 경자(1840)

년 12월26일 두 가지 장을 모두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생강 꾸러미 속에 능이버섯을 넣었다고 하는데 없애 버렸습니다. 먼 길이라 편지가 잘못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분의 항적(香積: 좋은 음식)을 봄이 지난 후에도 얻어 다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해 금강에 있을 때, 그대와 철선스님이 다 함께 굳게(작은 거울을 나누어 주고 받으며)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봄이 지난 후 모두 찾아서 철선에게 보내는 것이 어떻지요.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船頭分別 未知海印發光 亦有如是一境 固當以毛吞巨海 芥納須彌 無礙圓融而銷之 師又謂何入海以後 已近百日 風信不利 世諦上聲聞影響 遂此阻斷 忽此禪械 遠存 悉團蒲淨吉亦足慰開 累狀開口即嘆 閉眼即眠 師之活計 亦有外是者耶 以師慈悲 宜其注序 亦無庸過慮耳 許痴之至今不歸

“불교, 시, 방송은 내 삶의 三業”

국악방송 박준영 사장

“유리하다고 교만치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치 말고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참인지 깊이 생각해 이치가 명확하면 과감히 행동하라 범어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라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래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 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의 길이니라”

(잡보장경)중에서

30여년째 <잡보장경> 독송으로 아침을 여는 불자가 있다. 박준영(74) 국악방송 사장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가다 아침을 기도하고 신행으로 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박 사장 같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 사는 이들에게 정말 불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박 사장이 이 경구를 매일 아침 독송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S서 바쁘게 일하던 시절, 모처럼만에 가족들과 여름 휴가차 설악산을 올라갔다. 한여름 무더위를 뚫고 조계암에 도착한 갈증을 해소하려 샘물로 갔다. 물을 길어 올려 마시려는 순간 머리 위서 무엇인가 흔들리는 것을 봤다. 바로 종이에 코팅된 <잡보장경>이었다. 물론 처음 본 구절은 아니었지만 웬일인지 그날은 마음속에서 새롭게 느껴졌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나무에 매달린 <잡보장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있었다던 역시 몰마시러 온 보살님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라며 혼자 중얼거리며 이 경구를 읽었다.

박 사장은 생각했다. “이 구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옥같은 명문분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자 박 사장은 즉시 종이를 펜을 가방서 꺼내 이 <잡보장경> 구절을 정성스럽게 옮겨 적었다.

휴가서 돌아온 그는 당시 KBS 사보에 <잡보장경>을 소개하는 글을 썼으며, 수십 장을 복사해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지금도 그는 집에 걸어 놓은 <잡보장경> 구절을 삼배와 함께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미래소년 코난” “개구리 왕눈이” 등 우리가 말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지는 40여편의 만화 주제가를 일선 PD시절 작사하기도 했던 박 사장은 자신의 인생을 ‘불(佛), 시(詩), 방(放)’으로 표현한다. 즉 시를 쓰고 부처님 법대로 살며, 방송을 통해 국악을 대중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박 사장이 하는 주 업무도 국악방송 사장으로서 방송 매체를 통한 ‘국악의 대중화’다.

“국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국악을 알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게 되고 내 조국을 사랑하게 됩니다. 뿌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과 일상의 소통 이것이 국악방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술과 문화는 현상과 모양 소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지요. 국악방송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아있는 문화’로서 청취자들에게 판소리와 정가, 민요 등을 전달합니다. 우리 한국사람의 몸에는 국악에 대한 DNA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학생들은 우리 음악을 모릅니다. 생모 얼굴을 못 보고 자란다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국악을 꼭 살려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국악방송은 분명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보편성이 있는 우리의 음악을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박 사장은 국악방송을 통해 세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첫 번째가 아리랑 캠페인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한국의 대표적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나의노래 아리랑’ 특집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몇해 전 서울시청서 열린 ‘아리랑축제’에 참가한 퓨전 재즈기타의 최고봉인 리 린나워(Lee Ritenour)는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 혹시 그 이름은 몰라도 두 번만 들으면 따라할 수 있는 가락이 아리랑이요 모두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말을 했다. 우리 아리랑이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렇게 재즈의 가장 마저 빠져버린 아리랑의 매력에 국내 대중들에게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는 게 박준영 사장의 생각이다. 때문에 대중들에게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2010년 10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국악제’이다. 한국국악협회와 국악방송이 공동 주최했다. 국악방송 박준영 사장은 이 행사를 ‘KOREA No.1 BRAND ARIRANG : 대한민국 대표상징 아리랑’이란 주제로 기획했다. 이를 동안 펼쳐진 이 행사는 1930년대 이후 아리랑의 대표곡인 아리랑과 민요 아리랑 등을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예년 국악제와 다르게 주제

매일아침 <잡보장경> 독송으로 시작 ‘아리랑’ 대표브랜드 만들어 축제 기획 ‘참으로 국악 사랑하는 운동’ 회원 1만명

1999년 방송인 연합불자회 창립 주말마다 사찰다니며 불교시 습작

를 분명히 해, 무대에 아리랑 관련 노래의 자막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이 쉽게 아리랑을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일종의 ‘아리랑 노래방’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박준영 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 ‘열췌 아리랑’과 ‘열췌 아리랑’의 가사말을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아리랑을 친숙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박준영 사장은 아리랑에 대해 “오늘날 우리 가슴에 절로 흘러 내리게 우리 가락이요 그 대표적인 것”이라며 “예나 지금이나 동서나 남북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배어 있는 친구이자, 정서이자, 바로 우리 문화의 상징이다”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두 번째로 박 사장이 주력하는 것이 ‘참국사’ 운동이다. ‘참으로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캠페인 용지 한 장을 들고 신청서에 가입을 종용한다. 직접 영접(?)도 나서는 것이다. 고회가 넓은 나이임에도 열정 하나만큼은 웬만한 젊은이 못지 않다.

국악 공연의 저변확대를 위해 후원자는 취지로 2010년 4월 출판한 ‘참국사’는 현재 1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덕수궁서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이처럼 국악 대중화를 위한 그의 열정 깊은 곳에서는 불교가 있었다.

“국악과 불교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도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민간 토속신앙을 흡수하며 발전했습니다. 국악 역시 그 기원을 따지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말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범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범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범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랑 효랑이 양초 연봉 완기둥 7.0 x 34cm



아랑 용 양초 연봉 완기둥 7.0 x 34cm



육각초 7.0 x 34



밀납연화 7.0 x 6.5cm



외가바



후리지아



영원향 장.단.소.비리



향수림



연화 대 9.5 x 11cm, 연화 중 9 x 10cm, 연화 소 7 x 6.5cm



백목향 목향



우리향, 백단향, 선종매, 인상향, 대발향, 복향



•도자기 인등 •인등용 파라핀 오일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원기둥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2009년 불교연륜인상을 수상하는 박준영사장(사진 왼쪽).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상패를 수여받고 있다.



박준영 사장은 ... 1940년생으로 동아대와 중앙대 대학원을 거쳐 1968년부터 동양방송 영화부 PD로 방송일을 시작해 1970년대의 TBC 애니메이션과 1980년대 KBS 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미 문단에 등단한 시인으로서 많은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작사했다. 빨강머리앤, 그레이트마징가, 그랜드아저, 꼬마자동차붕붕, 미래소년코난, 우주소년아름, 짱가, 호호아줌마 등이 모두 그의 작품이다. 1990년대에는 KBS영상사업단 사장과 대구방송 대표 이사로 활동했고, 2000년대에는 SBS 전무이사로 재직했다. 이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뒤 국악방송 사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도장포엔 사랑이 보인다> <장안에서 꿈을 꾸다> <열짱, 너는 꼬리가 예쁘다> <동물의 왕국 그림자를 베다> 등이 있다.

고 들어가면 농경사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하며 흥얼거리던 가락이 국악이 된 것이죠. 이처럼 융합 과정을 거쳐 발전한 국악과 불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국악과 찬불가 선율이 비슷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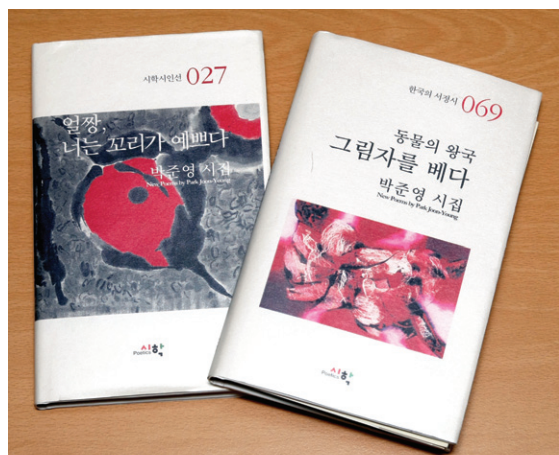
그가 이렇게 평생 동안 불자의 길을 걷는데는 집안 내력과는 관계가 깊다. 경남 진주의 신심 깊은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불교적 정서를 많이 받고 성장했다. 새벽마다 마을에 은은히 울리던 종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으며, 진주 사법학교 시절 고성 견성암서 고시공부를 잠깐 하며 산사의 매력에 빠졌다. 이후 방송국 PD로 일하면서 주말마다 사찰을 즐겨 다니며 수행생활을 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나가면 하루가 즐거워서 좋았어요. 마음이 편안해 지거든요. 대구방송 사장 시절에는 제가 있는 숙소가 조계종립학교인 능인고등학교 후문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립학교다 보니까 학교 안에 법당이 있었어요. 명모삼천지교라고 법당 근처에서 사니까 매일 새벽에 나가 예불에 참가하게 됐지요. 그리고 주말이면 동화사, 파계사 등을 돌아다니면서 시(詩)도 썼지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박 사장은 1990년 봉은사 불교대학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또한 SBS 전무시절인 1998년에는 오랫동안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사내 불자회를 재조직했고, 이듬해인 1999년에는 SBS와 MBC, KBS, 경향신문 등 신문방송 현직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방송인 연합불자회를 만들어 매주 목요일마다 법회를 진행했다.

이렇게 불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박 사장의 법명은 '향산(香山)'이다.

그가 평소 존경하는 봉화 축서사 무어 스님에게 받은 것이다. 세상에 향기를 내뿜는 사랍이 되라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박 사장은 남모르는 선행도 펼쳤다.



박준영 사장이 펴낸 시집 중 일부. 총 네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2009년 수상한 불교인문인상의 상금 300만원을 고계 방송모니터 모임인 사단법인 보리에 보시했다. 고려후에는 선물로 자신들이 십사일반 모이준 여경경비도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참여불교재가연대에 고스란히 전하기도 했다.

이런 박 사장이 최근들어 국악 대중화를 위해 전력하는 것이 또있다. 고등학교 교가의 국악화다. 현재 1만1317개의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서 불리는 일본군가 형태의 교가 대신 국악반주 교가를 보급하는 것이다.

"교가는 주요 국가기념일과 학교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각 학교의 상징이자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애교심과 같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음악성과 함께 민족성을 개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음악이 가지는 특성상 단체활동을 시작하는 학교인 경우 교가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에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학교서 사용하는 교가의 음원 상태가 대부분 열악해 이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박 사장이 국악방송 스튜디오를 개방했다. 녹음 및 믹싱 과정을 스튜디오서 거침으로써 한층 더 수준높은 음질의 교가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계몽중학교를 비롯해 금성여고, 대원여고, 봉고, 예성여고 등 10여개 학교 이상에서 국악 교가 편곡에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박 사장의 인생에 또하나 비중을 두는 것이 있다. 시(詩)를 짓는 것이다. 박준영 사장은 <도장포엔 사랑이 보인다> 등 시집을 네 권 펴내기도 했다. 그런데 시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말마다 사찰을 답사하며 써서인지 불교적 내용들이 많다. 특히 '바보부처'는 우리 중생이 모두 부처요 불성이 있다는 것을 시로 잔잔하게 펼쳤다.

"금부처 금부처 도금한 금부처야/도둑놈이 금철을 벗겨가도/쓰다랗다 가리부터 말이 없는 먹부처야/부처님은 바보/바보니까 부처/그런 거 안 가리니까 더 부처/거지도 부처/도둑놈도 부처/당신도 부처/우리 모두 부처/부처가 바보니까/우리 모두 바보/바보, 바보 바보가 아름다운 세상" ('바보부처' 중에서)

박 사장은 말한다. "부처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이자 멘토입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법을 알리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발원하지요. 앞으로도 여지껏 그랬듯이 '불, 시, 방' 인생을 계속 잘 회향하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전법일기

부치지 못한 편지

우리절에서는 49셋날 재를 지내는 중간에 돌아간신 분에게 가족이 쓴 편지를 읽는다. 아들이 어머니께, 딸이 아버지께, 외손녀가 외할머니께,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사위가 장인어른께,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있는 집의 가족들에게 말한다. 임종환자의 눈이 빛을 잃기 전에, 정신이 온전할 때 이별을 충분히 하라.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그들은 혼전 속에서 세상을 떠난다. 또 몇몇 정신을 지니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 어느 날 문득 환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나서 사람들은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여섯 번 재를 지내는 동안 유가족들에게 말한다. "편지를 써 오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좋고, 죄송하다고 참회하는 말도 좋고, 감사의 말도 좋고, 아뵤다웠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고... 어떤 글이든 다 좋습니다."

대체로 세 집 중 한 집은 편지를 쓰지 않는다. 하지만 편지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할 말이 없겠는가.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다고. 다만 그들은 글 쓰는 데 자신이 없거나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은 거다.

어떤 집은 전 가족이 다 써오기도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전에 꿰어와 돌아간신 분과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참석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쫓아낸다. 그런 날은 49재가 길어지지만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

가신님을 위해 부르는 '송가'



그림·박구원

절절한 고인과 추억

기슴에 묻고 우린 살아가네

유난히 금슬이 좋았던 부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아내는 양탈을 부리듯 소리쳤다. "여보, 난 어떡하라고 이렇게 먼저 가는 거야! 나는 당신 없이 혼자 살기 싫어. 나 얼른 데리고 가!" 그리고는 법당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목놓아 통곡했다.

갓난아기였을 때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가 마지막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고통 없는 세상으로 얼른 가시라고 기도했던 손녀는 할머니의 49셋날 그걸 뒤우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나니 하루, 한 시간, 한 순간이 그리운데 왜 그때는 할머니를 고통없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만 기도했을까. 그

리고 부처님은 그 기도를 왜 그렇게 빨리 들어주신 걸까."

마녀란 외국 땅에서 임종을 맞는 어머니를 찾아오는 자식의 절박한 심정을 아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제가 도착하는 화요일까지 살아만 계셔 달라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화요일 아이 어미와 도착하여 어머니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체온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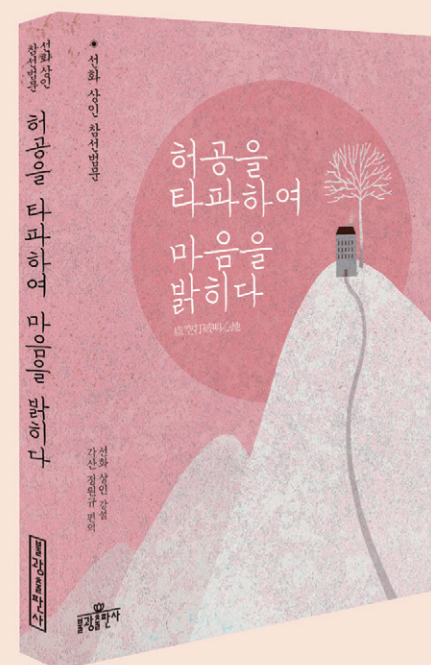
시아버지를 존경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평생 안고 산 상처를 언급하며 영전에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시할아버님의 기도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아버님께서 이튿날 공산당원의 축창에 찢려 돌아간신 할아버님의 시신을 보셨다는 그 사건이 아버님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치며 아버님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딸은 49일이 지나도록 엄마의 부재(不在)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위암을 선고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지켜보며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비없이 엄마와 헤어졌네요. 정말 내 곁에 안 계신지, 지금도 실감하지 못하고 텅 빈 집에 받지 않을 전화도 걸어보고 입지 못하는 웃도 빨아봅니다."

우리는 모두 떠난다. 이 육신이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러니 서로 미워하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고, 후회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른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중국 선종 오가의 법을 이은 허운 대사의 법제자, 중국 위양종(魏仰宗)의 제9대 조사 선화(宣化) 상인(上人)의 활발발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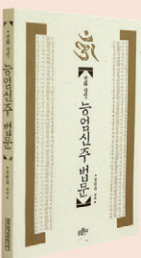
- 왜 참선을 해야만 하는가?
- 어떻게 참선을 해야 하는가?
- 무엇이 참선의 요결인가?
- 참선 수행에서 만나는 경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선화 상인 강설, 각산 정원규 편역
228쪽 | 값 9,000원



선화 상인, 권역 각산 정원규
강설 원장 | 상 944원, 하 807원
각권 4,200원

선교경수(禪敎兼修), 현밀겸학(顯密兼學)의 경건
『능엄경』의 핵심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50종의 마장에 대한 상세한 강설



선화 상인, 권역 각산 정원규
신국판 | 256원 | 값 12,000원

『능엄경』의 핵심 능엄신주의 바른 명송법과 능엄신주의 신묘한 힘에 관한 실제 체험담 업장과 마장을 타파하는 능엄신주의 모든 것

선화 상인(宣化上人, 1918-1995)

법명은 안자(安慈), 자는 도륜(道輪). 중국 위양종(魏仰宗)의 제9대 법승으로 사호는 선화(宣化). 1956년 윤기선에서 허운(虛雲) 선사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아 중국 위양종의 제9대 조사(宗師) 되고 선화(宣化)라는 법호를 받았다. 홍콩과 미국 등지에 전법하였다. 미국 등 세계 각지에 27개의 도량을 건립하였고 승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으며, 평생토록 임경하게 수행하면서 참선과 임불, 예불, 경전 연구, 계율 수지, 대중화법을 특히 강조하였다.

각산(覺山) 정원규(鄭源奎)

불교에 입문한 이후 줄곧 마음을 밝히기 위하여 정진하고 있다.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선화 상인 능엄신주 법문』, 『선화 상인 능엄경 강설(상·하)』 등을 옮겼다.